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 출범...6월 밑그림 완성

2026년 7월17일부터 31일간 열려...30개국 200만명 관광객 예상 연내 조직위 출범...전시·공연·체험 등 480여개 행사·프로그램 마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둔 여수시가 또 한 번 도약을 꿈꾼다.

여수시는 박람회 개최를 3년여 앞두고 오는 6월 최종 계획을 수립하며 행사 밑그림을 마무리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2026년 7월17일부터 31일간 여수시 돌산읍 진도지구와 섬 지역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박람회에는 총사업비 212억원이 투입되며 여수시와 전남도가 함께 행사를 치른다.

비공인 국제행사이지만 30여 개국 200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고용 효과는 6000명 이상이며, 4000억원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여수시는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2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 시민 226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정책 기획'과 '시민 활동', '대외 홍보', '섬 가꾸기' 등 4개 분과로 나눠 실행 과제를 수행하고 대내외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앞서 섬박람회 종합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계획에 다각적으로 반영한 뒤 시의회·시민 설명회, 최종 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6월에는 최종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연말에는 재단법인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며 분야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섬박람회 업무를 전담할 '섬박람회지원과'를 신설, 섬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섬박람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제관은 '바다의 무한한 가치'라는 주제 의식을 담은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지난 14일 여수문화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여수시는 증강현실(AR), 미디어 상호작용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포부를 지녔다.

주제관이 있는 돌산읍 진도지구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비랑길로 알려진 남면 금오도, 개도 부행사장에서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이들 공간에서는 모두 480여 개의 행사·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관은 주제관과 섬생태관, 섬문화관, 섬마케팅관, 섬공공관, 섬미래관, 해상교량관 등 7개로 꾸민다.

여수의 365개 섬과 국내외 섬이 지닌 '섬의 무한한 가치' 주제를 충실히 구현할 계획이다.

특별 공연장과 섬놀이터 외에 해양 레저스포츠, '힐링 아일랜드 호핑투어', 섬주민 어업체험 등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행사도 열린다. 섬 국제교류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섬포럼'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글로벌 성장정책 개발을 위한 '섬 진흥원과 함께하는 학술 행사'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섬박람회장에서 '섬의 날' 행사(8월8일)를 열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탠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섬의 가치와 잠재력을 발견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섬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며 "관광객들에게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들이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상수도 요금 인상 1년 유예...가계 부담 완화

1억 5000만원 감면 효과

곡성군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남 최하위 수준임에도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1년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군은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곡성군 가정용 1단계 상수도 요금은 0-10t 기준 347원으로, 지난해 요금(314원)보다 10.5% 인상됐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부과

했지만, 4월부터 인상을 유예하며 내년 3월까지 2022년도 요금을 부과한다.

곡성군이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 원가 대비 39.7%(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수돗물 1t을 생산하는 원가가 1299원이지만 평균 공급 단가는 515.7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0%에 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곡성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같은 해 기준 전남지역 평균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0.5%를 크게 밑돌았다.

곡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4년까지 5년간 상수도 요금을 해마다

10.4% 인상할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잇따라 인상하면서 군은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 유예로 군민들은 총 1억5000만원 상당을 감면받게 된다.

강성주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은 "최근 연이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군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기자 노트

사성암 대불상 설치, 솔로몬의 지혜를



이진택

동부취재본부 부국장

지리산 구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조사는 인도의 승려로 한국 불교 화엄종의 시조이다. 이 스님은 서기 544년에 지리산에 4개의 사찰을 세웠다. 화엄사를 비롯해 아름다운 단풍으로 널리 알려진 피앗골의 연곡사, 가지산의 석남사와 수덕사의 견성암과 함께 비구니의 3대 가람인 산청의 대원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지리산 천왕봉 아래 법계사 등 유명한 사찰로 지금도 부처님의 율법을 널리 펴고 있다.

또 삼진강 건너 화엄사와 마주하는 오산에도 '사성암'이라는 암자를 같은 해에 세웠다. 원효와 도선, 진각, 의상 등 네 명의 고승이 수도해 사성암이라고 하고 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창건자인 연기조사를 함께 해 오산의 '5성암'으로 이름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사성암은 뛰어난 풍광과 자연환경으로 불자들에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승지이다.

구례군은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커다란 부처상도 조성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오산 사성암은 2014년에 국가명승지 제111호로 지정돼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정부에서 구례 군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를 해제하면서 케이블카도 설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어 대불상 건립사업도 구례군과 사성암이 관광과 포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큰 부처상 설치 사업이 수면으로 떠오르자 일부 종교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

이다.

기자는 십여 년 전 브라질의 리우 데자네이루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 큰 예수상 즉 구세주 그리스도상을 본 적이 있다. 이 건축물은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산 정상에 높이 30m, 대좌 8m, 양팔의 길이 28m, 무게 635t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그 예수상을 마

주하는 순간 경이로움에 "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연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했다. 구례에도 이런 예수상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짝 채웠다. 또 베트남 호찌민시 인근 봉타우의 예수상을 보았을 때도 매우 놀랐다. 예수상의 몸속 계단을 통과해 양팔에 올라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 세계에 세워진 예수상과 부처상은 애초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세월이 흐른 현재는 종교와 관광의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부처상과 예수상이 설치된 지역과 국가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나라에서는 조상을 잘 둔 덕이라고 한다. 역속이지만 구례도 어디든 장소를 달리해서 예수상과 부처상을 세운다 한다면 이 또한 못할 일도 아닐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면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 덕을 토틈히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lit@kwangju.co.kr

광양시 매실 소비 촉진

커피빈코리아와 업무협약

황매실청 12t 납품키로

광양시가 광양 매실 소비 촉진을 위해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주)커피빈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7일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중철 커피빈코리아 대표이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광양에서 2년 속성된 황매실청 12t을 커피빈에 납품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와 광양시 매실 연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커피빈코리아는 광양 매실을 원료로 만든 새 음료 '광양황매실 스페셜링'을 21일 선보인다.

광양 매실을 활용해 젊은 MZ세대 취향에 맞는 음료를 만들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광양시 측은 기대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커피빈코리아는 광양 매실을 우선으로 구매하고 사용하기로 했다.



정인화(오른쪽 세 번째) 광양시장과 김중철(가운데) 커피빈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지난 17일 광양시청에서 '광양 매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또 광양 매실의 생산 관리와 홍보, 지역 농가 상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양의 매실 식품 산업 발전과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며

"미래 소비층의 광양 매실 인지도를 높여 이미지 제고와 지역 농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80곳 추가 모집

여수시가 식사 문화 개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늘릴 계획이다.

'안심식당'은 방역 수칙 준수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음식점으로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사 문화 보급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시는 현재 안심식당 363 업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올해 80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음식 덜어 먹기(앞접시, 집게 또는 1인 반상 제공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수저집 개발 포장 및 개인별 수저 사선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실천 과제를 준수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오는 31일까지 여수시 식품위생과에 안심식당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다음·네이버 포털에 안심식당으로 등록돼 홍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신규 지정 업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심식당 준수사항을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에 새로 입주한 5개사 대표들이 지난 14일 순천시의 입주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 짝 찾다

5개 기업 동지 입주율 100%

순천시 창업지원센터 '창업연당'에 5개 기업이 동지를 틀며 입주율 100%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달 24일까지 창업연당 입주기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기업 7개사 가운데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개사는 교육 기술(에듀테크)과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기술창업기업들로 구성됐다.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기업들이 순천에서 새로운 기업활동을 이어나간다. 이달 7일 발표평가를 거쳐 입주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자회사기 사용 작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씨

앤시위터'와 인공지능 교구재를 만드는 'AI-glue', 모링가 소재 음료가 주력 상품인 '코모즈랩', 유아용 교구 판매 플랫폼을 제작하는 '폴리테일즈', '썬글장기' 등이 입주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개사는 지난 14일 입주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은 개별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받는다. 공유회의실과 비대면 화상장비 플랫폼,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순천시는 입주기업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전문상담, 사업과 교육, 교류망 구축, 정기 기업설명회(IR) 개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관광명소 부상

꽃·바다 어우러진 경관 일품

해변 캠핑장 4월 중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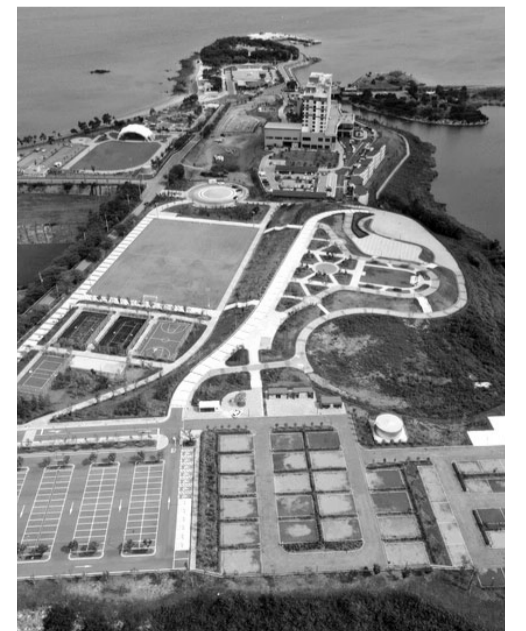
바다와 호수 그리고 꽃과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전남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이 봄철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은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 유희부지 26만㎡ 규모에 캠핑장, 물놀이장, 주차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이 조성돼 관광객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탐방받고 있다.

수변 노을공원으로 가는 길목 3.5km 구간의 폐교된 두원초등학교-고흥만 방조제 사이는 벚꽃길에 터널처럼 형성돼 벚꽃이 활짝 피는 3월 말-4월 초 사이 가족과 연인 등이 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군은 봄철 상춘객에게 고흥만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수목 등 환경정비를 완료했다. 또 캠핑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해변 캠핑장 운영자를 3월 말에 선정해 4월 중 개장할 예정이다.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여름에는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고 미로공원, 오감 체험숲, 야간경관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 노을공원을 고흥만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고흥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과 낭만이 어우러진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은 가족 및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최적의 휴양지"라며 "현대적 감각의 경관조명과 조형물 등 시설물을 보강해 고흥만의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